# 2018 동계 이화봉사단
# 국내교육봉사

## 전라남도 여수시
## - 주사랑지역아동센터

2019. 1

**김*영**

2018 여수 주사랑아동센터에서의 겨울 국내 교육 봉사는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누군가에게 저의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팀원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교육 봉사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너무 넓어서 수업의 난이도나 방향성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히 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프로그램의 연령대를 최대한 보편적일 수 있게 기획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아서 뿌듯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봉사 활동이 그저 봉사자의 나눔과 희생정신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봉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봉사를 하고 보니 제가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봉사에 대한 책임감,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주도한 것으로부터 얻은 성취감,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을 좋아해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보람과 뿌듯함은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알지 못했을 봉사의 가치를 모두가 함께 했기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린**

주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의 4박 5일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먼저, 팀원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이 색다른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지만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직접 실행에 옮겨질 때 큰 성취감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을 때 뿌듯함을 느꼈던 반면 그러지 못할 때에는 많이 아쉬웠다. 다음에도 이화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점들을 보완해서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4박 5일간의 봉사활동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나와는 다른 아이들의 생각과 관심사 등을 들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면의 세상을 알아가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봉사는 시혜의 마음과 시각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라 느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차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이 고마웠다. 첫날에는 서먹했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만큼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큰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 또한, 첫 만남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고생해준 팀원들에게도 너무 고맙다. 이화봉사단은 나에게 절대 잊지 못할 값진 시간과 추억을 안겨주었다.

**이*미**

주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의 4박 5일은 정말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먼저, 중고등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과 에코백 만들기, 심폐소생술 실습 등과 같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센터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보통 센터에서는 문제집 풀기를 위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화봉사단으로 인해 색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시각과 관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기획부터 함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함께 극복한 팀원들에게 너무 수고했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